

인하대 2020학년도 정시 모집인원 확대 선발



인하대(총장 조명우)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으로 신입생 전체 모집인원(3천791명)의 19.4%인 735명을 선발한다. 세부 모집인원은 일반전형 649명, 실기전형 86명이다.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수시 이월인원에 한해 선발한다. 원서는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정시모집 전형별 주요 일정은 입학처 홈페이지의 모집요강을 참조하면 된다.

다만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 지원하려면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모집인원의 변화를 고려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2019학년도 대입 최초 모집인원이 661명이었지만 정원 내 기준 177명이 이월돼 838명을 선발하는 등 매년 적지 않은 수가 이월된다. 2020학년도 최종 모집인원은 원서접수 시작 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수시모집 이월 인원이 반영된 최종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2019학년도 정시 경쟁률과 최초 합격자 등록률을 고려해야 한다. 2019학년도 대입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의예과로 31.1대 1(2018학년도 2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9학년도 대입 최초 합격자 등록률이 저조한 모집 단위는 의예과, 공간정보공학과(자연), 건축학부(인문, 자연), 행정학과, 소비자학과(인

문, 자연) 등인데,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다면 경쟁률과 충원 합격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2020학년도 일반전형 수능 반영 영역과 비율을 고려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시 일반 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하고, 반영 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다만 인문계열 모집단위 중 공간정보공학과, 건축학부, 컴퓨터공학과, 간호학과, 아태물류학부, 글로벌금융학과는 수학 영역의 가중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영어 절대평가 반영 방법에 의한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인하대는 자체 등급별 환산 점수를 활용해 1등급 200점, 2등급 195점, 3등급 190점, 4등급 180점 등으로 반영한다.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등급 간 5점 차이가 나는 반면, 4등급부터는 격차가 커지므로 유·불리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김현정 입학처장은 “인하대는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다중 전공을 의무화하고, 계절 학기를 활용한 마이크로 전공 등 프로그램 마련과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시 모집요강, 입시 결과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선택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